

# 바른미래 내부 이견...패스트트랙 막판 진통

### 한국당 뿐 여야 4당 선거제·개혁 법안 협상 난항 오늘 선거구 획정안 제출 데드라인 못 지킬 듯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 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으나, 지지 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확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당내 반대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신뢰를 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선듯 수용한 데 이어 민주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긍정 평가하면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

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여야 4당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설득에 나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겉으로 "민주당이 선거제 단일안과 관련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는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내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보수성향 의원은 물론이고 호남 중진 의원들까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해 지도부가 이견 조율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당내 기류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계속 조율해서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내 이상기류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어렵사리 당내 이견을 수습하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여야 4당 견해차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 선거제 패스트트랙 멈춰야” 이용호 의원 평화당에 호소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문소속 이용호 의원이 14일 민주평화당을 향해 “호남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는 ‘지역구 축소’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세우라”고 요구했다.

평화당 의원들과 옛 국민의당에 함께 몸담았던 이 의원은 이날 “민주평화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제발등을 짚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 25%가 조정대상에 포함되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선거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도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경제인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나경원 태극기 부대 대변인 커밍아웃” 사흘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은 국가원수·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오 발언)이자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탄핵 부정과 국정농단의 그늘에서 여전치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당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일관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빗대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를 향한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다.

이해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유권자를 모독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 노정치인의 애끓는 思婦曲

#### 평화당 박지원 의원 아내 그리는 책 펴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는 책 「고마워-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를 펴냈다.

이 책은 “정치 9단”인 노정치인의 애끓는 사부곡(思婦曲)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 “미처 말하지 못한 사랑의 말들”에는 저자가 아내를 잃은 정치인 박지원의 황망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아내의 당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어 본문에는 박지원·이선자 부부가 함께한 57년을 사진과 에피소드로 담았다. 아내와의 옛 추억과 사랑, 고백, 그리고 아내의 긴 투병 생활, 뒤늦은 참회를 고백하듯 풀어냈다. 세상의

모든 부부에 게전하는 사랑이야기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에필로그에서 사별 후 100일이 지난 뒤의 허전함과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다짐을 했다.

“당신에 내 삶의 반역서여 행복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한 날들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 당부대로 살겠습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문 대통령 지지도 45.0%...취임 이래 최저

####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넘어 민주-한국당 격차 4.9%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째 하락해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를 받아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5.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오른 50.1%였다. 부정 평가가 50%선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5.1%포인트)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긍정 평가 최저치와 부정 평가 최고치는 각각 지난해 12월 넷째 주에 기록한 45.9%와 49.7%였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고, 황교안 대표를 향한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다.

이해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유권자를 모독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총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와 같은 37.2%, 한국당이 1.9%포인트 오른 32.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해 11월부터 10%포인트대로 축소됐고, 지난 1월 말 한 자릿수로 줄었다.

정의당은 0.3%포인트 내린 6.7%, 바른미래당은 0.5%포인트 내린 5.7%,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하락한 1.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이 50.3%, 반대가 30.8%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박지원 의원 아내 그리는 책 펴내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0 2 1 4 0 0 2  
78 5 point

0 1 7 2 0 0 0 0 0 0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